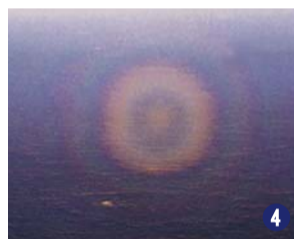


하나님의 약속 희한한 무지개

주요행사 때마다 다양한 모양의 무지개가 나타나



5월 14일 오전 11시경, 교회 상공에 희한한 무지개가 떠 성도와 주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날, 해를 중심으로 한 원형 무지개와 해 중심을 지나가는 원형 무지개, 그것을 받치는 또 하나의 무지개(사진 1)가 뜬 것이다.

성경에는 하나님 권능을 통해 천기를 움직이는 기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다. 그 중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나타내 주는 상징이다(계 4:3).

1998년 5월 15일, 원형 무지개를 시작으로 지난 12년 동안 우리 교회 상공에는 물론, 하나님 일을 하는 국내외 곳곳에서 원형 무지개, 이중·삼중 무지개, K자형 무지개 등 다양한 모양의 무지개가 자주 나타나고 있다.

- ① 희한한 무지개 (2009. 5. 14.)
- ② 이스라엘 선교 시 반달형 무지개 (2008. 2.)
- ③ 콩고 성회 선교팀이 탑승한 비행기에서 본 희한한 무지개 (2006. 2.)
- ④ 온두라스 성회 선교팀이 탑승한 비행기에서 촬영한 희한한 삼중 원형 무지개 (2002. 7.)
- ⑤ 필리핀 성회 선교팀이 탑승한 비행기 내부에 나타난 K자형 무지개 (2001. 9.)
- ⑥ 우리 교회 상공에 나타난 일자형 무지개 (2001. 5.)
- ⑦ 우리 교회 상공에 나타난 첫 원형 무지개 (1998. 5. 15.)

미국 뉴욕 비탈리 피쉬버그 선교사 파송

우리 교회는 5월 17일, 주일 저녁예배 때 선교사 파송식을 거행했다.

파송된 비탈리 피쉬버그 선교사는 임상영양학·대체 의학 박사로서 2006년 이재록 목사 초청 '뉴욕 연합대 성회'에서 하나님 권능의 역사를 목도한 뒤, 미국 뉴욕에서 손수건 집회를 인도하며 살아 계신 하나님을 전해 왔다.

앞으로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 '십자가의 도'를 강론하고, 방송과 문서로 성결 복음을 활발히 전하게 된다.

예능위원회 '만민 1집' 앨범 발매



우리 교회 예능위원회에서는 '만민 1집 목자의 마음'을 오디오 테이프와 CD, 악보집으로 제작해 5월 14일부터 발매했다.

만민 1집은 '비전', '주님 생각', '축복의 비결', '감사' 등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은 맑고 깨끗한 12곡의 찬양을 엄선해 수록했다.

| 칼럼 |

원군을 차단하자

요즘에는 금연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써 절제하다가도 담배 피는 사람 옆에 가면 어떨까요? "딱한 대만 피우자." 하기 쉽지요.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합니다.

예컨대, 험담하는 습관을 버리려면 자기 입술을 지키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이 험담하는 것도 듣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느새 동조하게 되고, 결국 나쁜 습관을 고치기 어렵습니다. 마치 적군과 싸우면서 한편으로는 적의 원군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진리의 마음을 일구기 위해서는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을 삼가며 조심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글 이재록 목사
한겨레신문 연재 '길'에서



- '2009 콩고 연합성회' 시 현지어 찬양으로 영광돌린 선교팀
- 보행장애 치료 • 에이즈 치료 • 강사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
- 이복님 원장 인도 케냐 나이로비 만민성결교회 성령충만기도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요한복음 10:34, 35)

예수님께서 큰 권능을 행하시자 이를 본 사람들은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 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판단 정죄하며 어찌하든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지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고 앞일을 예언한다거나,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면 자칭 신 또는 하나님이라 한다며 이상히 여기거나 이단이라 오해하고 판단 정죄하는 경우를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란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전하거나 하나님께서 알려 주신 비밀한 일들을 말하고, 하나님 권능의 역사를 행함으로 살아 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증거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1.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시편 82편 6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신(神)’과 ‘지존자의 아들’이란 구약시대 재판관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재판권을 위임받았으므로 ‘신’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대표자를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신약성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신처럼 보이거나 신처럼 여기기도 하고,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들에게 대한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행 14:11, 28:6, 요 10:34, 35).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도 했고, 주의 사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도 했으며, 이상과 몽조로 알려 주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앞으로 될 일들을 미리 알고 예언하거나 사람으로는 풀 수 없는 꿈이나 이상에 대해서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신처럼 보이거나 신이라 여긴 것입니다.

2.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사례

먼저,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창세기 41장을 보면 애굽 왕 바로가 하루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마음이 번민하여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물었지만 아무도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마침 예전에 요셉과 함께 감옥에 있었던 한 관원장이 요셉을 왕에게 추천합니다.

바로 왕이 요셉을 불러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풀다더라.” 하니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

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답변하지요. 바로 왕의 꿈 해석은 요셉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분야라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이 바로 왕의 꿈에 대한 명쾌한 해석과 함께 대안까지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왕은 그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 왕이 보기에 요셉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요, 명철과 지혜가 특출한 사람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이에 바로 왕은 요셉에게 왕 다음 가는 권세를 주고 애굽 전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요셉, 모세, 다니엘, 사도 바울 등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처럼 보이거나 신으로 여겼습니다

두 번째, 바로 왕에게 신으로 보였던 모세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킬 지도자로 택함받은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권능을 나타내는 모세는 바로 왕에게 신처럼 보일 만큼 두려운 존재가 되었고 애굽에 재앙을 내리는데도 바로 왕은 모세를 죽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행한 기사와 표적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오직 신만이 할 수 있는 역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왕 앞에 나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출애굽을 거절하는 바로 왕 앞에 모세가 재앙을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바로 왕에게 모세는 마치 신처럼 보인 것입니다.

세 번째, 이상과 꿈으로 신처럼 보였던 다니엘 선지자입니다. 다니엘이 포로

로 끌려와 살았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꿈을 꾸고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고민 끝에 박수와 술객, 점쟁이와 술사를 불러 자기가 꾸는 꿈을 말해 주지도 않고 그 꿈과 해석을 내놓으라고 다그칩니다.

술사들은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 했습니다. 꿈을 말해 주지도 않고 해석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고, 육체에 거하지 않는 신, 곧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술사들의 말을 듣고 진노해 바벨론의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에게 기한을 구하며 그 해석을 보여 드리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에 이상으로 이 은밀한 것을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시지요. 다니엘은 왕 앞에 나가 왕의 꿈과 해석을 말합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단 2, 3장).

네 번째, 많은 사람에게 신으로 보여진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면서 앓은뱅이 된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네 말로 바로 일어서라.” 말합니다. 그러자 즉시 그 사람이 뛰고 걸었지요. 이때 사람들은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 오셨다.”(행 14:11) 고백합니다.

또 한 번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다가 큰 풍랑으로 배가 파손해 멜리데라는 섬에 표류했을 때의 일입니다. 날이 추워 불을 피웠는데 바울이 나무를 더 집어 넣으려는 순간 불 가운데 놀란 독사가 튀어나와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이를 본 섬의 원주민들은 바울이 죽을 줄로만 알았지요.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자 오히려 신이라 말하며(행 28:6) 후히 대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왕이라도 엎드려 절할 정도로 존귀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이었지요(시 82:6).

또한 하나님 능력이 임해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 보였을 때에는 그들을 신(神)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어 하나님 나라를 크게 이루며 하나님 사랑과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이재록 목사 대표 저서 |

십자가의 도 15개국어로 출간된 전 세계인의 필독서



전 세계 무수한 영혼을 영적 잠에서 깨우고 참 생명을 주는 감동의 메시지!

하나님의 참사랑이 이곳에 담겨 있다.

주님의 자취 상·하 요한복음 강해



탄생부터 부활 승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행적에 담긴 깊은 영적 의미를 깨우쳐 주므로 영적 성장은 물론, 응답과 축복으로 안내할 예수님의 일대기

천국 상·하 천국의 비밀을 말한다



상수정같이 맑고 아름다운 곳 하: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운 곳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히 행복과 영화를 누릴 황홀한 천국 생활을 생생하게 묘사한 그림 같은 메시지

지옥 이제까지 밝혀지지 않은 지옥의 참상



한 영혼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보내는 간절한 사랑의 메시지

믿음의 분량 믿음의 단계별 지침서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강도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이방인 복음 전파로 수없이 고난을 당한 사도 바울의 믿음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고린도전서 강해 상·하 지혜와 능력의 삶으로 인도하는 길라잡이



분쟁이나 전도, 결혼, 우상의 제물이나 영적 은사 등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는지, 하나님 뜻을 명쾌하게 설명해 준다.

나의 삶 나의 신앙 1·2 멈추지 않는 감동과 진실의 향기



지금도 성경의 기적이 계속되고 있다. 왜 믿음으로 기도받는 이마다 치유되고 살아나는지 멈추지 않는 성령의 역사, 그 비밀의 열쇠는 무엇인가?

깨어라 이스라엘 마지막 때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비밀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려 왔던 모든 유대인에게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하며, 참된 해답을 주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온 인류에게도 경고의 메시지가 될 것이다.

인생반전을 꿈꾸신다면... 『십자가의 도』를 읽으세요

동작경찰서 정보보안과에 근무하는 양동록 장로(2대대 18교구). 그는 위엄 있는 경찰관의 모습보다 친절한 이웃집 아저씨 같다.

평소 베풀고 섬기는 것을 좋아해서 폐품 할머니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리어카를 목적지까지 밀어드리고 손에 용돈까지 쥐어 주고 돌아온다.

아침 일찍 출근해 청소나 책상 정리를 해 놓고, 남이 싫어하는 업무를 자진해 하는 그는 크리스천으로서 좋은 평판을 얻고 있다. 이런 그의 유일한 취미는 '말씀공부'이다. 전에는 술, 담배는 물론이고 바둑, 장기, 잡기에 빠져 있던 그가 지금은 포켓성경을 휴대해 읽고, 기도하는 재미에 빠져 산다.

“전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천국만 만드시지 왜 지옥을 만드셨을까?’, ‘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막지 않으셨을까?’ 등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이러한 의문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으로 30여 년간 교회에 다닌 그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해 준 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의 도』 책자였다. 1996년 그가 만민중앙교회로 와 읽게 된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십자가의 도』는 그를 위해 출간된 것처럼 그의 오랜 궁금증을 소상히 해



양동록 장로 (동작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위)

결해 주었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구원의 섭리와 모든 영혼이 천국 가길 원하지만 지옥을 두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심정... 특히 선악과를 두신 이유... 눈물, 슬픔, 고통을 체험함으로써 천국의 참 행복을 알게 하시는 ‘상대상’을 깨닫고는 ‘바로 이거야!’ 하고 무릎을 쳤지요. 뭐라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았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였는지를 깨달았다. 그리고 집사하면서 아직도 술, 담배를 하는 것이 몹시 부끄러웠다. 술, 담배뿐 아니라 즐겨하던 온갖 잡기를 모두 끊고, 새 신자라는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 전철, 버스 등에서 틈나는 대로 성경을 읽으며 기도를 쉬지 않았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저서로 말씀을 양식 삼으며 새롭게 생겨나는 영적 호기심은 적어 놓았다가 사람들에게 묻기도 했다.

그의 아내는 잡기를 즐기던 그가 일찍 귀가해 조용히 신앙서적을 읽고 각종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마냥 신기했다고 한다. 그리고 급한 성격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자상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변화된 것은 진정 하나님 은혜라고 간증한다. 부부가 항상 화목하고 주의 일에 서로 격려하니 자녀들은 “친구들이 우리 집을 너무 부러워한다.”며 즐거워한다.

지금도 오직 새예루살렘 소망밖에 없다는 그는 “아직 저에게 버리지 못한 의와 틀이 있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고전 15:31)을 좌우명으로 삼고 호리라도 남김없이 죽어질 것입니다.”라고 담대히 고백한다.

태(胎)를 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조세란 집사 (2대대 19교구, 1-4여선교회)



저는 3년 전, 임신 중에 태아가 죽은 채로 자궁 안에 오래 머물러 있다가 나오는 계류유산(死胎)을 하였습니다. 계류유산은 습관성 유산으로 이어지거나 임신이 어렵다는 말을 하더군요.

당시 직장생활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와 심한 허리통증으로 아이를 갖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2008년 11월 28일, 잉태를 위해 당회장 이재록 목

사님께 기도받으러 갔습니다. 그때, 당회장님께서 ‘남자든 여자든 몸이 안 되면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말씀하신 후 기도해 주셨지요. 저는 “아버지 하나님, 제 몸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으로 바뀌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잉태하지 못하던 많은 부부가 하나님 권능으로 응답 받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뒤 약 100일 동안을 쌀뜨물같이 뿌연 소변을 배출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임신할 수 있는 몸으로 바뀌 주고 계시다고 확신하며 기뻐했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찾아 행했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구역장 사명을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남편은 잘될 거라며 응원해 주었지요.

지난 3월 31일, 저는 남편과 함께 꼭 응답받아 영광 돌려야겠다는 믿음으로 당회장님과 악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하며 저는 마치 구름 위에 떠 있는 것처럼 행복했지요. 4월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왔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은 결과, 임신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부부에게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왼쪽 귀가 들리기 시작해요

이흥복 자매 (2대학선교회)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저는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당회장님의 ‘믿음의 분량’ 설교를 들으니 낙원에 갈 믿음밖에 못됨을 깨달았지요. ‘마음에 할례’ 하는 것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주보에 요약된 설교를 모아 공부하고 성구도 암송하며 말씀을 양식 삼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철야에 참석해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이루려고 노력했지요. 하루는 제가 흰 셔츠를 입고 컴퓨터를 하는데 모니터에서 벌레들이 나와서 제 몸에 붙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알고 인터넷과 TV를 절제하게 되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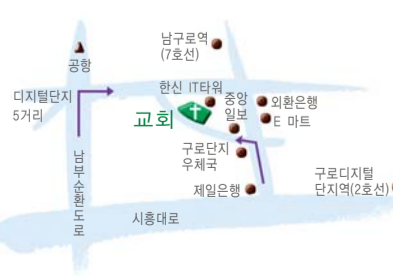
저에게는 어릴 적부터 말 못할 고민이 있었습니다. 왼쪽 귀에 감각이 없고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아 상대 입을 쳐다보고 집중해야 들을 수 있었지요. 그런데 작년 10월, 병원에서 왼쪽 귀의 신경이 선천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절망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귀의 치료를 놓고 작정해 기도하며 당회장님 기도를 받을 때마다 항상 귀에 손을 대고 기도받는 것을 잊지 않았지요.

지난 3월 31일, 기도와 예물로 정성껏 준비해 당회장님께 기도를 받았 습니다. 그런데 감각이 없던 왼쪽 귀에 뭔가 따끔따끔한 느낌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큰 소리가 약간씩 들리는 것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대예배	1부 · 오전 10:00	화요찬양예배 [대학·가나안·청년·비율·마리아]	오후 8:00
	2부 · 오전 11:30		
	[빛과소금선교회 오후 9:00]	수요찬양예배 [빛소금]	오후 9:00
	[요식업선교회 오후 11:00]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오후 4:00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오후 3: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00		
금요철야예배	오후 11:00	아동주일학교 주일예배	1부 · 오전 9:0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 오전 11:40
새벽예배	새벽 5:00		저녁 · 오후 1:30

교회약도



- 시내버스: 5536, 5615번 (교회앞 하차)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 (디지털단지오거리 하차)
-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2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2호선 구로 디지털단지역(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 (교회앞 하차)
- 교회버스: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문의: 차량팀 ☎ 02-818-7391~5)

만민중앙소식을 받아보시려면

- 이 소식을 받아 보기 원하시는 분은 먼저 전화로 구독신청하신 후 우송료를 지정은행 또는 우체국에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 우 송 료 : 1년분 5,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 구독신청 : 02-851-3845, 070-8240-5609
 - 온라인 번호 (예금주: 위성영)
 - 국민은행 362-21-0201-106
 - 우리은행 072-255732-02-201
 - 농 협 100072-52-061722
 - 우 체 국 012419-02-047269

| 필리핀 |

대상포진을 치료받은 멜로디



멜로디를 처음 본 것은 작년 10월 중순경, 이사벨라 지역 심방 중이었습니다.

친척 집에 심부름 온 멜로디(13세)는 대상포진으로 목 뒤와 어깨 위쪽, 그리고 가슴까지 수포로 빼곡했습니다. 그녀는 사위를 하고 난 뒤 목 뒤에 수포가 생겼는데 이를 만에 이렇게 번졌다고 말했습니다.

병원 약을 복용한 후 약이 안 맞았는지

오히려 더 심해져 학교도 못 가고 있다고 했지요.

저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안쓰러웠습니다. 기도를 해 준 뒤, 무안 단물을 환부에 뿌려 주자 멜로디는 통증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후, 멜로디 집을 방문해 다시 무안 단물을 뿌려 주고 당회장님께 기도받은 손수건으로 기도(행 19:11, 12)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이내 수포가 위 아래로 번지는 것이 멈췄고, 2, 3일 뒤에는 수포가 화농되었습니다. 저는 멜로디와 그녀의 어머니에게 자연 치유가 되도록 절대 상처를 건드리지 말라고 당부했지요. 얼마 되지 않아 화농된 부위는 굳어 딱지가 앉았고, 딱지가 떨어지면서 그 자리에 새살이 돋아 깨끗해졌습니다.

멜로디는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기를 즐겨합니다. 물론 가

이중철 선교사 (마닐라 만민교회)

족도 감사해 하고 있지요. 이것을 목도한 이웃들 사이에 소문이 퍼져 손수건 기도를 받으러 오는 사람도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 권능을 체험하니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 절로 힘이 납니다.



• 수포가 번진 상태 • 화농된 상태
• 딱지가 앉은 상태 • 치료받은 멜로디

|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을 이용한 동시 화상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070-8223-4191~4, 010-4575-4194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2동 1323-12 ☎051)326-1537, 010-5521-207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2018-8410
- 새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1동 1281 지하 ☎053)783-3017, 010-7112-3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1-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909-4 ☎062)513-2455, 011-387-0263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81 ☎062)372-1002, 011-601-1070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1001-2 ☎062)266-7001, 011-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9663-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6-9870-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6-278-7712
- 평택만민농악교회 경기도 평택시 독곡동 488 삼익 2차 101동 704호 ☎031)665-1405, 011-358-5973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흥동 564-15 ☎041)667-4721, 010-3708-1537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1-701-024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1동 173-11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랑동 956 ☎016-215-0116, 010-4155-588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1100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마산시 회원구 회원2동 626-1 ☎055)247-8891~2, 010-3559-9067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3745-2119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리리 301-5 ☎055)852-5815, 010-2536-2515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중앙동 95-3 ☎055)289-9522, 011-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심리 965-1 ☎055)648-9107, 011-214-8891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효자동 192-3 2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구미시 오대동 742-4 ☎054)464-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주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0-3592-9522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873-6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례면 천장리 산153 ☎061)452-7443, 011-608-3037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929-1 ☎063)223-9991, 018-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1동 250-3 ☎063)853-0675,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671-11 ☎033)251-1144, 010-7770-2073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37-0271, 010-7733-3731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명주동 12-2 ☎033)641-3790, 017-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도 연동 2307-5 ☎064)745-0675, 010-2468-2251
- 영동지성전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0-5 ☎02)556-8517~8, 010-7223-2073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수유3동 188-26 ☎02)995-9951, 011-717-1217, 011-719-2073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월피동 508-1 ☎031)485-9143, 017-366-5914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1-287-7369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전동 698-12 ☎032)569-3835, 010-7720-7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7-4 ☎031)781-9830, 017-355-1928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905-2419, 019-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2290-1856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길1동 348-5 ☎02)489-3766, 016-776-1017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2 ☎032)528-3830, 010-7720-7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동 158-5 ☎031)202-8480, 010-2213-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증리동 465-4 ☎031)635-9103, 016-718-7458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3동 165-1 ☎031)840-2906, 019-251-3149

| 페루 |

불면증, 척추 만성 통증이 깨끗이 사라졌어요



저는 카제파노 에레디아 국립병원 간호사입니다. 14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리움과 우울증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악몽에 시달렸고,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지요.

게다가 10년 전부터는 척추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이 밀려와 오래 앉아 있거나 잠 자리에 들 때면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병원에서는 진통제와 비타민을 복용하는 것 외에는 별 다른 치료법이 없다고 했지요. 극심한 통증 때문에 ‘이렇게 살면 무엇 하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던 2008년 6월, 저는 여동생 전도로 페루 만민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은 제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삶의 희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어느새 제 마음에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만민의 양 떼라는 것이 자랑스러웠지요.

작년 7월 중순 어느 날, 이재호 목사님이 집으로 심방을 오셨습니다. 그때 권능의 손수건(행 19:11, 12)을 제 등허리에 얹고 기도해 주셨는데, 그 순간 통증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 벨라 사라사르 니뚜랄 (페루 만민교회)

이튿날 새벽, 화장실을 가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 무척 힘들었는데 그날은 가뿐히 일어나 걷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척추 만성 통증이 깨끗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월에는 14년 된 불면증도 치료되었습니다. 하루는 다니엘철야에 참석해 기도하던 중 습관적으로 수면제를 복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믿음 없는 것인지 깨우침이 왔습니다. 저는 주님께 회개하며 약을 복용하지 않고도 평안히 잠을 잘 수 있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요. 그날 밤, 저는 약을 먹지 않고도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었고 악몽에서 해방되는 큰 체험을 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정상이 되어 행복하고 활기찬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 콩고민주공화국 |

소아마비인 선천성 농아에게 일어난 기적

김석환 목사 (킨샤사 만민교회)

지난 4월 25, 26일, 순교자기념 스타디움에서 열린 ‘이복님 원장 초청 2009 콩고 연합성회’에서 본 수많은 간증자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많은 성도가 치료되었는데, 그중 한 어린이의 간증은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빈민가 미콩가 지역에 사는 데이비드(남, 3세)는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였고, 영양 부족으로 잘 걷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선천성 농아였지요. 그 아이에 대한 어머니의 안타까운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 킨샤사 만민교회까지는 30km

정도 떨어진 먼 거리지만 그녀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연합성회가 열린다는 소식은 그녀에게 한 줄기 빛으로 다가왔지요.

4월 26일, 성회에 아들을 데리고 참석한 그녀는 단 위에서 해 주는 이복님 원장님의 손수건 기도(행 19:11, 12)를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데이비드가 잘 걸을 뿐 아니라 말소리를 듣고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그녀는 더욱 믿음을 갖게 되었고, 데이비드로 인해 늘 마음속에 간직할 애끓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 놓을 수 있었습니다.



데이비드와 김석환 목사